



도계 성당

설립 일. 1965. 12. 10.
주보성인. 사도 성 요한

2024년 6월 16일
연중 제11주일

제1독서

예제 17,22-24

제2독서

2코린 5,6-10

복음

마르 4,26-34

화답송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음을 널리 알리리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들빛바로가기
www.wjcatholic.or.kr



나는 토끼처럼 귀를 기울이고 당신을 들었다.



김정현 프란치스코 신부 / 단구동 본당 보좌

황경신 작가의 수필집 제목입니다.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제목이 제 마음에 꼭 들어서, 언젠가는 읽어보리라 다짐한 책입니다. 책방에서 우연히 이 책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늘을 떠가는 구름,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 푸른 나무, 색깔의 꽃, 다양한 종류의 곤충, 갖가지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새 등 신비로운 자연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 자연 자체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느님 또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십니다. 곧, 이 세상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자연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느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의 뜻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이 농부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하느님의 뜻이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 세상에 작용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론 '이러이러한 것은 다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하며 속단하기도 하고, 때론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욕심만, 내 뜻만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놓치기도 하죠.

저 또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토끼처럼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조용한 성당에 앉아 말씀과 성체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요히 주님의 말씀과 성체 안에 머무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2독서의 말씀처럼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100% 하느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말씀에 쫓겨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늘 기도하고 모든일에 감사하는 도계성당 공동체



도계 성당

1947년 12월 신자 권오진 그레고리오가 이주하면서 도계 지역에 가톨릭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1952년 12월에는 삼척 본당 버크 신부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하면서 도계 공소가 설립되었다. 초대 공소 회장 권오진을 중심으로 1960년부터 성당 건축용 부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964년 5월 손 바드리시오 신부 재임 시절 교구청의 승인을 받아 성당 부지 1,006평을 매입해 성당 건립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2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건평 150평의 2층 성당 및 사제관을 1965년 12월에 완공하였다. 삼척, 묵호, 북평 공소로 이어오다 1965년 12월 10일 도계 성당으로 승격 설립되어 2025년이면 60주년을 맞이한다.

탄광촌에 자리잡아 지역 복음화 나선 도계성당

1950~1960년 사이에 국내 최대의 무연탄 생산지로서 탄광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광업에 종사하며 한때 석탄산업 호황기를 맞기도 했지만, 석탄산업의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 대다수가 폐광되며 한때 5만 명이던 인구가 1만 명 아래로 감소되었다. 이처럼 침체되는 지역 분위기 속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광업 회사인 대한 석탄공사 도계광업소도 내년 2025년이면 폐광을 앞두고 있다.

도계 성당 역시 지역의 흐름에 따라 한때 535명에 이르렀던 교세는 이제 주일미사 참례 인원이 60명 내외이다. 광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가족들, 학기 중에 미사 참례를 하는 도계 캠퍼스 학생들, 그리고 은퇴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도계 성당은 초대 주임인 신 안토니오 신부의 사목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19대까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목하신 신부님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온 교우들의 자발적인 신앙 활동이 이어오고 있으며, 본당 첫 사제로는 2005년 9월 14일 성호영 다니엘 신부님이 탄생하였다.

성당 안에 들어서면 성당 정면 예수 십자가상이 달려있는 돌벽면이 눈에 띄는데, 경건하고 무게감을 주어 인상 깊은 곳이기도 하다. 이 돌벽면은 신자들이 직접 돌을 주워 와 꾸민 곳으로 정성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꾸르실료, ME 등 교구 주관의 각종 교육의 기회들도 열심히 참여하여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하느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냈다.



▲ 성당 내부



제18대 김영진 바르바나 신부님 때는 노후화된 성당을 재건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2020년 4월 대대적인 개보수를 통해 노후한 본당의 외부 및 내부를 보수하고 성당 건물을 개축하여 2020년 7월 4일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을 모시고 개축 축복식을 거행했다.

성당 내부 마룻바닥을 교체하고 청동의 14처에는 색을 입혀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였고, 특히 12사도 성화를 재현한 스테인드글라스는 창을 통해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신비함이 내부를 더욱 엄숙하고 경건하게 한다. 성당 외부에는 종탑 위에 예수상, 그 아래에는 주보성인 사도 성요한상을 세웠다.

찬양과 기도, 형제애로 응답하는 도계성당

코로나19 여파로 신자 수가 예전에 비해 줄었고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 본당이지만, 교중미사 때 들리는 성가는 교세와 비례하지 않을 만큼 참 우렁차다. 전신자 수의 60%가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며 레지오 팀이 5개나 있는 하느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제설작업을 할 때마다 동원되는 형제들(기도 군단에 이은 제설 군단)의 대동단결은 여느 제설차 한 대 부럽지 않다.

2023년 10월 제주도 2박3일 성지순례 및 자연 피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교우들의 신앙을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내년이면 60주년을 맞이하는 도계성당!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와 감사로 신앙을 견고히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계 성당 공동체를 이어가고자 한다.



▲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 성모동산

예수님께서는 성체 안에 실제로 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성체성사 형상 안에 실제로 현존하십니다.

“이는 내 몸이다. …… 이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26-30)라는 말씀으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빵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룩한 변화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일컫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성체 안에 실제 현존하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 빵과 포도주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의 두 가지 형상 안에 각각 온전히 현존하며, 또 그 각 부분에도 현존하시므로 빵을 나누어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지 않으십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77항 참조). 그러므로 영성체 때 쪼개진 성체를 모시게 되더라도 온전한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것입니다.

영성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영성체로 주님의 몸(성체)을 받아 모시고자 하는 신자는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중대한 잘못(대죄)을 지었다면 먼저 고해성사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 곧 소죄가 있는 경우에는 꼭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소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미사 안에서 참회와 자비송을 바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영성체를 하면 소죄를 용서받습니다.

영성체는 세례 받은 신자 스스로 영성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지만, 교회법에 따라 혼인 장애가 있는 신자이거나 파문을 받은 신자에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영성체가 유보됩니다.

용소막 이야기 II



정 남 진 안드레아 신부 / 용소막 본당 주임

프와요 신부가 용소막의 초대 주임 신부로 부임하면서 교세는 더욱 확장되었고 신자 수가 늘어나자, 그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더 넓은 장소가 필요했다. 경당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너무 작고 비좁았다. 프와요 신부가 뮌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거의 매 주일마다 교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신부님께서 저희더러 주일에 꼭 미사 참례를 하러 오라고 하십니다만 저희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1904년 5월 18일 자)

1908년 경당을 증축하여 두 배로 넓혔지만, 그 공간으로는 교우촌의 교우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더욱 커다란 성당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대 신부인 기요 신부가 뮌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이미 많은 신자가 큰 성당을 짓기 바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크게 놀란 점은 몇몇 마을 교우들이 제게 수차례 성당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고 물어왔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도 누군가 제게 말하기를 교우들이 성당을 좀 더 중심이 되는 곳에 그리고 좀 더 크게 짓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1912년 1월 28일 자)

기요 신부의 마지막 푸념이 참 재미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신자들이 커다란 기와집에 사는 부자들도 아니고, 새로운 이 서양식 성당을 짓는 데에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초가집에나 간신히 사는 저 가난한 신자들이 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었을 것이다. 그러면 서도 저리 당당히 ‘기왕이면 크게 좀 지어 달라’고 졸라대니 저 신자들이 얼마나 알미웠을까?

하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 생각과 달리 신자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 성당 짓는 데에 쓰일 회색, 적색 벽돌들은 모두 신자들이 직접 구워낸다. 박해의 피난처이자 교우촌의 상징과도 같았던 옹기 가마터가 새로운 사업의 원동력이 된 순간이기도 했다. 신자들은 밤새 벽돌을 구워 성당 터로 재료를 날라주었고, 중국 기술자들은 그 벽돌들을 받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다. 성당에 쓰일 목재와 기둥들도 신자들이 모두 날라왔다. 주로 탁사정에서 베어 왔는데, 그 커다란 나무를 옮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를 기다려, 냇가에 물이 불면 나무를 띄워 줄을 묶어 끌고 올라왔다고 한다.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와야 했기에 많은 고생을 했다.

이 사업을 위해 수많은 신자가 마음을 모았다. 당시에는 멀리 영월, 단양 지역도 용소막 관할 구역이었는데, 그곳 신자들이 여름에는 각자 자리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 후에는 각자 집을 싸 들고 와 성당 주변 신자들 집에 머물며 성당 짓는 데에 매달렸다고 한다. 당시 본당 회장이었던 최도철 바르나바 회장의 가족들은 내내 성당 짓는 데에 매달리느라 자기 땅에 농사지을 시간이 없어, 주변의 신자들이 대신 다 지어 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느님 집이라는 것이 결코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님을 느낀다.



교구장 동정



6월 16일(주일)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우천 성당)
17일(월)~22일(토) 신학생 하계 연수(님의길 도보순례)
23일(주일) 사목방문(천곡동 성당)

축하드립니다

수품일 6월 22일(토) 장원용 신부



2024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피정 일정 안내

- 신청형 피정 - 신청형 피정은 모두 선착순입니다.
- ▶ 매일 11시 순례자 미사 (연중무휴)
- ▶ 피정비 2박3일 : 16만원(후원회원 8만원)
- ▶ 자원봉사 후원회 모집 T.043-651-4564 M.010-7613-4564
- ▶ 피정 신청 및 문의 043-651-4563

날짜	강사	날짜	강사
7월 19일(금)~21일(주일)	안소근 실비아 수녀님,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9월 20일(금)~22일(주일)	남궁 민 루카 신부님, 원주교구
8월 16일(금)~18일(주일)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원주교구	10월 18일(금)~20일(주일)	홍성남 마태오 신부님, 서울대교구

들빛 이모 저모

교구 사제 연수 / 6월 4일(화)~7일(금),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원주교구 소공동체 돌아보기”란 주제로 사제연수가 개최되었다. 또한 연수 마지막 날인 7일(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로 사제성화의 날 미사가 교구장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교구 알림

교구1피정회 1일피정

때 : 6월 18일(화) 10시~15시
곳 : 배론성지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성서사십주간

비대면(Zoom) : 6월 18일(화) 20시
대면 : 6월 18일(화) 태장동 성당 10시
6월 19일(수) 서부동 성당 19시30분
6월 20일(목) 황성 성당 2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중1~고2 예비신학생 모임

때 : 6월 23일(주일) 10시~15시
곳 : 양업사제관
문의 : 대학사목·성소 033-763-4220

미사·피정·연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모임 및 평화기원미사

때 : 6월 16일(주일) 18시30분 / 곳 : 명륜동 성당
문의 : 명륜동 성당 033-762-2512

가톨릭 의사회 월례미사

때 : 6월 17일(월) / 곳 : 가톨릭 원주도서관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신학생 하계 연수

때 : 6월 17일(월)~23일(주일), 6박 7일
내용 : 「님의 길」 1길 최양업 신부 길 순례
(풍수원 성당~배론성지 총 122Km)
문의 : 성소부 033-763-4220

가톨릭 제약인회 월례회의

때 : 6월 18일(화)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가톨릭 법조인회 월례미사

때 : 6월 19일(수) 18시30분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교정·경찰사목 033-766-1268

노인단체 임원 피정

때 : 6월 20일(목) 14시~21일(금) 13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 본당 남·여 노인단체 임원·봉사자
어르신 대학 담당자, 가정사목(노인사목) 담당자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목주, 필기도구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가톨릭 간호사회 월례회의

때 : 6월 20일(목)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로사리오 기도회

때 : 6월 20일(목) 13시30분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010-5360-6327

세신종합주방 할인마트

김종운(도마)
업소용 주방기구설비 제작전문
가정용 그릇, 관공서, 닥트
T.033-734-6060, 010-8793-5174
원주시 천사로 258(학성동)

서울미소플란트치과

국대성(안토니오), 강로사(로사)
서울대 치과병원 전문의 진료
임플란트, 충치치료, 잇몸치료
T.043-651-2275
제천 용두천로 86(보령약국 건물) 3층

(주)강원도로마이트광산

김성배(프란치스코), 정찬아(글라라)
고토비로, 골재, 부순모래, 조경석
T.033-762-5252~5

법무사 전두표 사무소

전두표(바오로), 여성자(로사)
등기, 민사, 호적, 법률상담
T.033-344-3888, 2888 (황성군청 앞)

파리바게뜨 무실세영점

단팥빵, 크림빵, 케익 등 베이커리 일체.
단체주문 환영
장금자(테레사)
T.033-745-8230, 010-5225-9861

라파엘 가톨릭 성지순례안내

9/11 추석특선알프스와중세수도원 10일(545만원)
9/16, 10/6, 10/20출발 특가
터키, 그리스 409만원(동반자100만원할인)
10/13 성모님 3대 발현지13일 485만원
10/22 이탈리아 일주 10일 520만원
대표 : 유재구 요한 02-778-8565

최경훈 내과(심장클리닉)

최경훈(마르코), 한숙자(헬레나)
고혈압 · 심혈관 질환 전문
대학병원급 심초음파 전문 장비 보유
24시간, 72시간 심전도 검사
24시간 혈동혈압, 동맥경화검사
T. 033-742-7400 원주세브란스병원 앞

바른 한 의원

www.baro75.co.kr
유경철(요셉) 신창숙(루시아)
043-642-8585
제천 중앙시장 1층 다동

전쟁이나 기아를 피하여 위험과 폭력이 난무하는 여정에 나서도록 내몰린 이주민들이
도착지 국가에서 환대받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기도합니다.

평협 월례회의

때 : 6월 21일(금) 18시30분
곳 : 가톨릭센터 202호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원주 ME 제151차 주말

때 : 6월 21일(금) 19시~23일(주일) 17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인원 : 선착순 20부부(혼인한지 3년 이상, 성직자, 수도자)
예약금 : 10,000원
접수문의 : 원주ME 주말분과 010-4410-4217
010-8591-4217

연령회연합회 상반기 일일교육

때 : 6월 22일(토) 9시30분~16시30분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 홀
대상자 : 각 본당 연령회장 및 임원
교육내용 : 특강 및 연도교육
참가비 : 1인 20,000원
준비물 : 미사 준비, 필기도구, 개인 컵 지참
신청 : 6월 18일(화)까지 F. 033-765-4223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회장 010-9542-9000

성서부 예비봉사자 교육

때 : 6월 22일(토) 9시~12시
곳 : 가톨릭센터 202호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호스피스 완화의료교육(Zoom)

때 : 6월 22일(토) 9시~12시30분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이주민 미사 및 한글공부

때 : 6월 23일(주일) 12시
곳 : 가톨릭센터 200호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여성연합회 하계연수

때 : 6월 25일(화)
곳 : 마산 경남식품 견학 및 우곡 성지순례
대상 : 본당 성모회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준비물 : 개인 컵이나 텀블러(식수는 개인 준비)
※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접수·문의 : 회장 010-7202-2474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본당 사무장 및 사무봉사자 연수

때 : 6월 26일(수)~27일(목)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내용 : - 특강 : 교구장 주교님
- 직무교육 : 본당 회계 관리
양업시스템 운용 / 각종 문서 작성
문의 : 사무처 033-765-4221

신임 교리교사 연수

때 : 6월 29일(토) 13시30분~30일(주일) 14시30분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 신임 교리교사 / 신임 연수 미이수 교리교사
준비물 : 사전 문제지(청소년국 홈페이지 게재),
기도문 외우기, 필기도구, 미사준비, 개인컵 등
참가비 : 80,000원 (1박 2일, 1인 1실)
농협 317-0026-5478-11 천주교원주교구
신청 : 6월 23일(일)까지 F. 033-765-4223
E-mail : wjch-02@hanmail.net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5-4228

부모, 자모 교육

때 : 6월 30일(주일) 15시~17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강당
주제 : “메타인지 학습법”
강사 : 리사 손(컬럼비아대학교 버나드대학 심리학과 부교수)
대상 : 주일학교 학부모, 본당 자모회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컵
참가비 : 1인 10,000원(선착순 60명)
농협 317-0026-5478-11 천주교원주교구
신청 : 6월 23일(주일)까지 F. 033-765-4223
E-mail : wjch-02@hanmail.net
선착순 접수로 신청서와 입금 후 확인 전화 바람.
신청 마감 후 환불되지 않음. 당일 접수 받지 않음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5-4228

‘एम마우스 성음악 합창단’ 창단 10주년 정기 연주회

1차 : 7월 7일(주일) 16시 / 용소막 성당
2차 : 7월 14일(주일) 16시 / 봉산동 성당
주관 : 원주교구 성음악 위원회
* 많은 관람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비신학생 하계 캠프

주제 : “마음껏 기뻐하고 즐겨워야여라.”(스바 3,14)
때 : 7월 26일(금)~28일(일), 2박 3일
곳 : 춘천교구 옥계성당

대상 : 중·고등부 예비신학생 및

사제성소에 관심있는 일반 청년
준비물 : 미사 준비, 목주, 수영복, 세면도구 등
※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가져오지 마세요.
참가비 : 1인당 80,000원
농협 317-0026-5478-81 천주교원주교구
마감 : 7월 17일(수)까지 F. 033-765-4223
문의 : 대학사목·성소 033-763-4220

복사학교

주제 :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
때 : 7월 30일(화)~8월 1일(목), 2박 3일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남·여 복사 단원,
복사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6학년(선착순 40명)
내용 : 복사교육 및 신앙교육
준비물 : 1인당 복사복 1벌(여-머리망), 세면도구,
필기도구, 여벌옷(충분히), 모자, 편한 신발 등
참가비 : 1인당 80,000원(2박 6식)
농협 317-0026-5478-81 천주교원주교구
신청 : 7월 17일(수)까지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 wjc4220@hanmail.net 로 접수
문의 : 대학사목·성소 033-763-4220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바람,나(힐링피정) : 7.5(금)~7(일)
효소단식 : 7.11(목)~14(일), 8.9(금)~12(월)
성경완독 : 7.26(금)~8.3(토), 8.23(금)~31(토)
문의 : 형성 도미니코피정의집 010-3340-0201

채용·모집·기타

향심기도 모임 안내

때 : 매주 목요일 14시~16시 / 곳 : 봉산동성당
대상 : 향심기도 교육을 받은 분
누구든지 처음 오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문의 : 원주교구 향심기도회 010-7278-9894

재속 프란치스코회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관심있는 신자를 위한
모집·안내
문의 : 삼척 형제회 010-2534-7194
제천 형제회 010-5145-4671
원주 형제회 010-4948-4943

임마누엘 가톨릭결혼정보 이 수산나 50년 전통 최고의 성혼를 신앙을 바탕으로 최고의 만남을 주선 부모님 상담 환영/늦은 초혼·재혼 전문 02-757-3343 명동성당앞 태웅빌딩808호	3H 지압침대 원주무실센터 신순남(세라피나), 강일성(요셉) 목, 척추교정 및 허리디스크에 좋은 지압침대 033-735-3737, 010-8994-3775	연세프라임안과 이석준(미카엘), 박명호 각종 안과 수술 전문 T.033-731-2753 연세안과 현재현, 송정순(마리아나) T.033-731-0505	상지식자재 할인마트 이희(마티아), 김향수(엘리사벳) 최저가판매 및 납품 일반고객 환영 T.033-733-5400(우산동)
연세민내과 의원 염동우(가브리엘), 민미심(엘리사벳) 위 대장내시경, 간·유방·갑상선 초음파 고혈압·당뇨·만성기침·만성피로 증후군 8시 진료시작(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T.033-733-7582(중앙로 86)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우명숙(글라리아), 김길영(마르티노) T.033-647-6063(강릉 임당동) 033-531-7887(동해 묵오동)	한일중기 볼보건설기계 송철희(대건안드레아), 김명옥(미리암) 볼보 중장비 정비/부품 T.043-645-0308, 010-8790-4800 충북 제천시 왕암동 998	(주)알렉스분석시험소 김만기(막시밀리안노콜레), 황병훈(유스토) 국제공인시험기관 분야 : 폐기물 (PCBs), 수질, 생태독성,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건축자재방출시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청정로 80-1 T.033-744-2817 / www.alexlab.co.kr